

제6회 「인문과학연구소」 학술 강연 요지

## 한국수필문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尹 在 天

(한국수필문학회 회장)

### 1.

한국수필의 현 실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발전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집필 목적이다. 필자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오늘의 한국수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일의 수필을 위한 반성과 다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이제까지의 우리 수필은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팽창을 이루어 수필 인구의 저변 확대에는 많은 업적과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의 수작(秀作)을 제외하고는 신변잡기의 수준에 머물거나 작가의 편협적인 자기 주장이나 호소, 일상사의 기록에 머물러 온 것이 현실이다. 이는 수필의 참다운 독자보다는 일단 쓰고 보자는 작자가 더 많다는 역설적인 세평이 이를 증명한다.

누구나 쓰면 글이고, 수필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견해는 수필을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전자는 수필의 대중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예로, 수필인에게 특정한 자격 요건이나 별도의 제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다른 장르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는 발전을 이룩했다는 인식에서 온 결과

라 할 수 있고, 후자는 글의 질을 중시한 예로, 수적 증가를 발전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한 반기를 강조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수필작품의 출현을 위해서는 한 작가의 피나는 수련 과정과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다. 활자의 매력에 스스로 매료되어 무조건 쓰고 발표하는 일에만 주력하는 수필가가 많으면 일반적인 수필 장르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과 같다.

양적인 과다 현상이 질적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적인 절제가 질적 향상의 결판르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옥석을 가리는 일만은 엄격해야 하는 것이 한국 수필의 앞날을 밝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신문학기 이후 한국수필의 일반적인 실태는 어떠했는가. 이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초창기 한국수필은 문학의 한 장르의 모습이기보다는 정치와 사회 현실에 대한 선각자의 토로의 마당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봉건사회의 폐단을 비판하고 신문화와 문명사회 현실에 합당한 정신 개혁을 주장하는 계몽사의 수단으로써 수필문학을 최대한으로 이용했다. 이는 일종의 도구화된 문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지속되었다. 이때 수필문학은 민족의 울분을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수난의 고비를 거친 한국수필은 오늘에 와서 발전을 위한 토대 위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 수필은 예술의 한 형태라기보다는 일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예술의 한 장르로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발전'은 곧 '변화'를 말한다. 기존의 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한 극서은 제자리걸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도려내고, 지켜나가야 할 것은 견고히 지키는 일만히 새롭게 무장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2.

수필의 문학의 한 장르로서 면모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예술로서의 강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언어가 가지고 있는 미적 특성을 수필작품에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필요없는 수식이나 미적 여과를 거치지 않는 표현은 과감히 제거하고, 삶의 에센스를 예리하게 파헤치거나 자연의 법칙과 탐미적 성찰을 독자에게 가슴 깊이 전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한편의 작품을 조직, 구조화해야 한다. 많은 언어로 이런저런 일을 언급했다고 해서 가치와 생명을 갖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가 미적감동을 유발하는 생동감을 갖게될 때 수필은 나름의 체온과 빛깔을 지니게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방이 아닌 독창적인 문체가 개발되어야 한다. 누구의 글인지가 구별되지 않는 비슷비슷한 표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수필은 독자에게 외면받게 된다.

수필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을 기록하는 글이 아니다. 국가 운영의 흔적이 국사라고 한다면, 한 개인의 삶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은 개인사-일기라고 할 수 있다. 수필은 이러한 성격의 글이 아니다. 자신의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일 뿐, 남에게는 강요할 수 없다. 문학의 가치는 작가가 창출해 낸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상상력에 의해 가능되는 것이다. 상상력은 소설의 구성 과정에서만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문학과 일상사를 구별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상력인 만큼 수필이 단순한 일상의 기록물이 아닌 문학의 한 장르로서 면모를 쇄신하기 위해 이에 따른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다음으로는 시대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필 작품을 창작하려는 작가정신과 이에 따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중의 기호에 야합하는 글을 쓰는 자세와는 다르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시

대정신을 확고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수필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을 읽는 사람들은 항상 새롭고 흥미진진한 것을 기대한다. 무엇을 지정하여 기다리거나 찾는 경우도 있지만, 작가에 의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작가는 항상 무엇을 만들어내어 제공할 것인가를 사색해야 한다. 독자가 예측할 수 없는 기지와 분석력으로 일상사로 부터 철학,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학적 모색 속에서 범독자적인 길을 걸을 능력이 필요하다. 진부한 주제와 내용에 매달려 있을 독자는 없는 만큼, 이탈하여 자기 세계를 확고히 하여 대중을 합류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수필이 수필로서의 면모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전변함에 따라 인간에 대한 사람의 이해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기존의 견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신사고(新思考)의 확립만이 새로운 현실에 호응하는 수필의 길이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할 한국수필에 새로운 희망이 수필가들에 의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